

Research Center

2015년 8월 12일

투자전략 Daily

- **시황분석**

긴급진단 : 위안화 평가 절하에 대한 Q&A

- **이머징마켓 동향**

중화권 증시 약보합, 여타 이머징 약세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삼광글라스 외 5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AJ렌터카 외 5종목

- **산업/기업분석**

화장품, 실리콘웍스, GKL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캘린더**

자산배분전략 | 노근환 ☎ 3276-6226

투 자 전 략 | 박소연 ☎ 3276-6176

시 황 분 석 | 김대준 ☎ 3276-6247

글 로 벌 전 략 | 박중제 ☎ 3276-6560

계 량 분 석 | 안 혁 ☎ 3276-6272

파 생 / E T F | 강송철 ☎ 3276-6181

스 몰 캡 전 략 | 정훈석 ☎ 3276-6232

이 머 징 마 켓 | 윤항진 ☎ 3276-6280

경 제 분 석 | 박정우 ☎ 3276-6229

채 권 분 석 | 이정범 ☎ 3276-6191

크 레 디 트 | 김기명 ☎ 3276-6206

R E I T s | 이수정 ☎ 3276-6252

true**friend** 한국투자 증권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8/4(화)	8/5(수)	8/6(목)	8/7(금)	8/10(월)	8/11(화)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027.99	2,029.76	2,013.29	2,013.29	2,010.23	2,003.17
	등락폭		19.50	1.77	-16.47	-16.47	-3.06	-7.06
	등락종목	상승(상한)	557(0)	565(1)	407(3)	407(3)	380(4)	273(3)
		하락(하한)	238(0)	235(0)	404(0)	404(0)	424(0)	551(1)
	ADR		88.91	95.29	97.23	97.23	94.73	85.68
	이격도	10 일	99.52	99.78	99.22	99.22	99.25	99.07
		20 일	99.01	99.06	98.29	98.29	98.19	97.99
	투자심리		40	50	40	40	40	40
	거래량	(백만 주)	389	319	341	341	335	308
	거래대금	(십억 원)	5,020	5,065	5,884	5,884	4,745	4,492
코스닥	코스닥지수		730.03	741.26	747.74	747.74	751.49	746.34
	등락폭		15.69	11.23	6.48	6.48	3.75	-5.15
	등락종목	상승(상한)	557(4)	565(2)	407(5)	407(5)	380(4)	273(1)
		하락(하한)	238(0)	235(0)	404(0)	404(0)	424(0)	551(0)
	ADR		93.95	97.99	101.50	101.50	100.16	90.36
	이격도	10 일	98.14	100.12	101.40	101.40	102.25	101.61
		20 일	97.32	98.72	99.44	99.44	99.80	99.14
	투자심리		40	50	40	40	40	40
	거래량	(백만 주)	423	418	449	449	444	432
	거래대금	(십억 원)	2,707	3,266	3,360	3,360	3,250	3,086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860.5	1,300.7	834.2	223.2	87.1	224.3	60.0	16.4	223.171	64.8
	매도	2,785.2	1,385.7	851.8	233.2	126.2	175.7	66.7	23.2	226.7	37.5
	순매수	75.3	-85.0	-17.6	-10.0	-39.2	48.6	-6.7	-6.8	-3.5	27.3
	8월 누계	287.4	-252.3	-349.6	96.3	-43.5	115.6	-34.4	-7.3	-476.2	314.5
	15년 누계	3,446.7	6,244.7	-10,104.6	-5,391.5	-1,407.0	-5,617.3	-808.8	-810.0	3,930.0	413.2
코스닥	매수	3,409.7	216.2	215.9	57.5	28.0	73.1	10.8	6.4	40.1	29.3
	매도	3,453.6	198.4	193.9	53.9	25.3	48.5	16.0	7.5	42.7	25.1
	순매수	-43.9	17.8	22.0	3.6	2.7	24.6	-5.2	-1.1	-2.6	4.1
	8월 누계	51.8	-158.3	150.8	-23.1	47.3	109.8	17.6	1.5	-2.3	-44.3
	15년 누계	1,042.7	-601.6	1,101.8	-261.5	401.8	787.3	-0.6	-217.6	392.3	-1,543.0

긴급진단 : 위안화 평가 절하에 대한 Q&A

2015년 Target KOSPI	2,300pt
12MF PER	9.95배
12MF PBR	0.89배
Yield Gap	8.3%P

- ▶ 중국 경기부양 및 SDR 편입을 위해 위안화 평가절하 추진, 위안화 당분간 약세 흐름
- ▶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향후 원화 약세 지속으로 대외 경쟁력 회복 기대
- ▶ 대형주 상대강도 개선. 원화 약세 수혜주와 방어주에 대한 관심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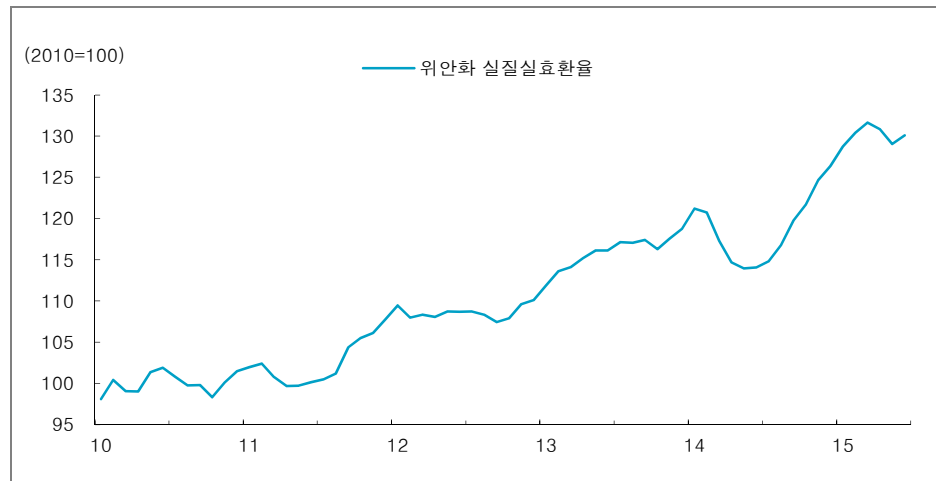
■ 위안화 관련 Q&A : 중국 정부의 위안화 평가절하 원인

Q1) 중국에서 왜 평가절하 카드를 꺼냈는지?

— 중국은 고정환율변동제를 시행하고 있어 외환시장이 경직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11일 위안화를 평가절하한 원인은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한다.

1) 중국 경기부진을 방어하기 위함이다. 지난 8월에 발표된 7월 수출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8.3%로 컨센서스인 -1.5%와 직전치인 2.8%를 모두 크게 하회했다. 유럽, 미국 등 선진국 수요가 부진했던 영향이 컸지만, 한편으로는 기타 주변 신흥국들의 통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중국 실질실효환율의 상승이 수출 경쟁력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생산자물가 상승률 역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등 국내 수요가 부진한 상황은 인민은행으로 하여금 환율 평가절하를 통한 수출 경쟁력 향상의 당위성을 인지하게 했을 것이다.

[그림 1] 위안화 실질실효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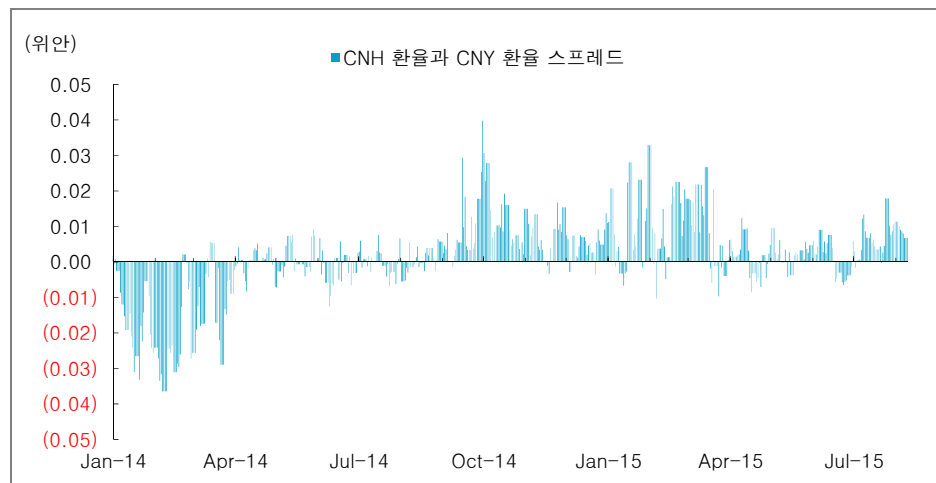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2) SDR 편입을 앞두고 자본시장 개방 수요가 있었다. 중국 인민은행은 2015년 8월 11일부터 위안화 환율 중간가격(Middle Rate)을 시장조성자(Market Maker)들이 직전일 환율 증가에 외환수급, 주요 통화들의 환율변화를 감안해 호가하는 방식으로 결정한다고 공시했다. 중국은 2005년부터 복수통화바스켓제도를 사용해왔는데 실질적으로는 달러의 움직임을 따라 정부가 중간가격을 공시하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정부가 위안화 환율을 자의적으로 조정한다는 인식이 강했는데, 이번 IMF 특별인출권(SDR) 편입을 위해 중국 정부는 위안화 거래 자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

3) 펀더멘탈과 괴리된 위안화 가치를 정상화하려는 목적도 있다. 최근 달러 강세와 중국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환율의 중간가격은 절상기조에서 계속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해외기관들은 중국 위안화 환율의 추세에 대해 매우 불안해했고, 향후 약세가 언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컸다. 중국내 위안화 현물환에 비해 해외 위안화(CNH)의 평가절하가 더욱 큰 것도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다만 이번 조치로 위안화 환율이 실제 경기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면, 해외 기관들의 우려는 완화될 것이다. 당분간 중국 시장에는 자본유출 등 악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불확실성 해소로 인한 자본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 역외(CNH) 위안화 환율과 역내(CNY) 위안화 환율의 스프레드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Q2) 추가적인 평가절하가 또 있을 것인지?

– 중국의 이번 조치는 위안화 환율 거래의 자율화 및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부양에 있다. 제도적으로 보면, 중국 정부가 환율제도를 시장 친화적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제도변경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위안화 국제화, 자본시장 개방 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장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현재의 2%에서 3%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시장에서는 이번 제도 변경으로 위안화 환율이 당분간 약세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본다.

Q3)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은?

–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기준금리를 인하함으로써 명목금리가 낮아진 상태인데다 최근 지방정부 채권 발행 증가로 중장기 시장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 통화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다. 환율의 평가절하는 오히려 이러한 통화완화 부담을 해소해주는데 긍정적인 일 것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기존대로 하반기 추가적인 통화완화 기조를 유지해가면서 필요 시 기준을 인하,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공급, 재정집행 확대 등의 수단을 통해 시중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다.

■ 위안화 관련 Q&A : 한국 경제 및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

Q4) 위안화 평가절하의 경제적 영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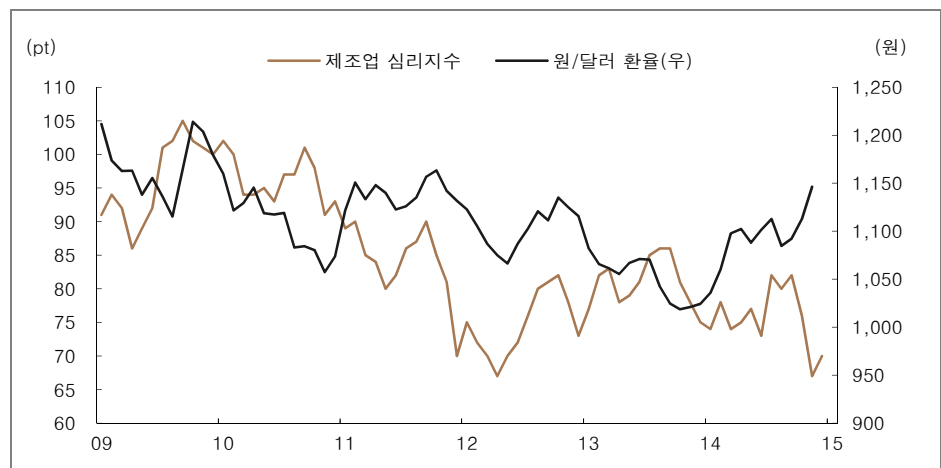
－ 위안화 환율 평가절하의 경제적 효과는 첫째, 중국 경기 부양에 따른 소득 효과와 둘째, 원화의 동반 약세에 따른 가격 효과로 나뉜다.

우선 중국 경기부양에 따른 소득효과를 보자. 위안화 환율 평가절하가 중국 경기 부양효과로 이어지게 되면 대중 수출 비중이 30% 내외인 한국 수출에는 당연히 긍정적이다. 중국의 성장률이 1%p 증가할 때 한국의 성장률이 대략 0.1%p 증가하는 관계를 감안한다면 이번 위안화 환율 평가절하의 효과는 중기적으로 한국의 성장률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당장 대중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보다는 원화의 동반 약세로 인해 수출기업들의 채산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는 심리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그림 3).

둘째, 원화의 동반 약세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가격 경쟁력 회복이다. 실질 실효 환율 기준으로 한국의 원화는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주요 제조업 국가 대비 큰 폭의 절상을 경험했다. 아래 [그림 4]에서 보듯이 중국이 15% 절상, 대만이 6% 절상, 일본이 34% 절하되는 동안 한국의 원화 가치는 32% 올라갔다. 아시아의 주요 경쟁국 대비 큰 폭의 통화가치 강세는 한국 제조업의 대외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

[그림 3] 국내 제조업 심리지수와 원/달러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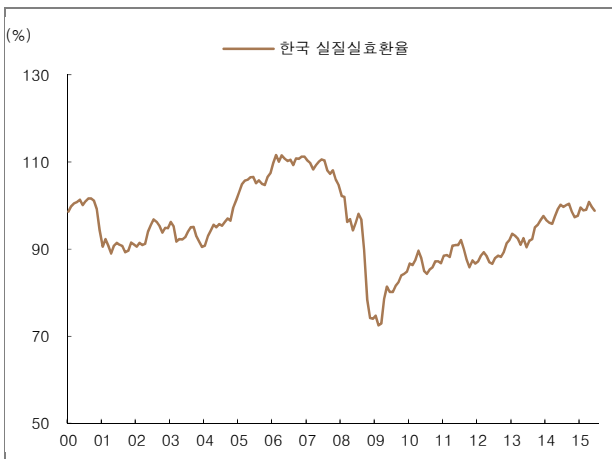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물론, 국내 수출의 경쟁력을 가격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비가격적인 요소에서도 경쟁력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다.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다. 그러나 한국의 제조업이 갖고 있는 ODM과 OEM적인 속성을 고려했을 때 가격적인 요소가 갖는 경쟁력은 무시할 수 없다. 30% 가까이 하락한 대외경쟁력을 비가격적인 요소에서 끌어 올릴 수 있는 산업은 글로벌 독과점 산업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따라서, 가격 경쟁력 회복은 현재 한국의 수출산업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의 평가절하로 촉발된 원화의 동반약세는 한국 수출의 대외경쟁력 회복에 일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아래 [그림 5]에서 보듯이 주요 제조업들의 2009년 이후 최근까지 실질실효환율 변화율과 2009년 대비 성장률 변화의 폭은 역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글로벌 수요가 정체된 상태에서 자국 통화 약세 효과를 충분히 누린 국가들은 경기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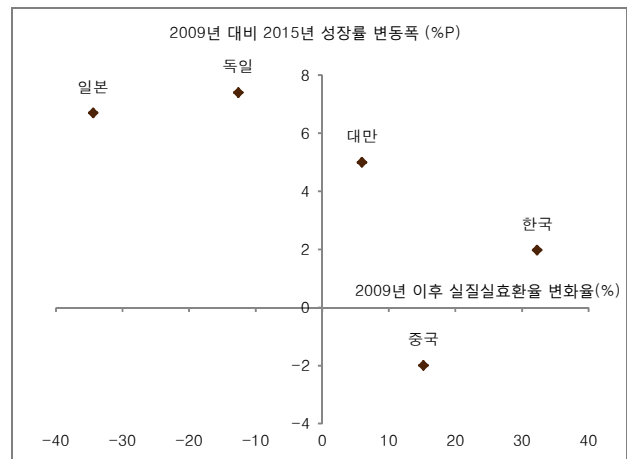
따라서, 이번 원화 약세가 의미있는 중기 트렌드로 자리 잡는다면 분명 원화 약세의 효과는 성장률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 한국 실질실효환율 추이



자료: Datastream, 한국투자증권

[그림 5] 2009년 대비 실질실효환율 변화와 성장률 변동



자료: Datastream, 한국투자증권

Q5) 위안화 평가절하에 따른 원/달러 환율 전망은?

— 아시아 통화의 동반 약세가 예상된다. 아래 [표 1]에서 보듯이 3분기 평균 1,165원, 4분기 평균 1,180원, 연 평균 1,135원을 예상한다. 기말 기준 3분기 원/달러 환율은 1,190원, 올해 연말 1,160원을 예상한다.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은 3분기 말 ~ 4분기 초에 고점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걷히고 하반기 중국 경기의 안정화가 나타난다면 시장은 일방적 통화약세에 대한 기대감을 어느 정도 거둘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원화 약세가 일시적 요인이 아닌 중기적으로 지속될 매크로 트렌드의 변화라는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2016년 평균 환율 역시 1,200원으로 2015년보다 높은 수준의 평균환율을 예상한다.

향후 글로벌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후속자료를 통해 보다 상세한 분석과 전망을 제시 하도록 하겠다.

〈표 1〉 2015~2016년 원/달러 환율 전망

(단위 : 원, 엔)

	1Q	2Q	3Q(F)	4Q(F)	2015(F)	2016(F)
원/달러 평균	1,100	1,096	1,165	1,180	1,135	1,200
원/달러 기말	1,109	1,115	1,190	1,160	1,160	1,250
엔/달러	119	121	123	120	121	119
원/엔 평균	9.2	9.1	9.5	9.8	9.4	10.1

자료: 한국투자증권

■ 위안화 관련 Q&A : 한국 주식시장 영향

Q6) 위안화 평가 절하 이후의 업종 전망은?

– 향후 주식시장의 핵심 변수는 환율이 될 전망이다. 인민은행의 위안화 평가 절하에 따른 환율 변화, 즉 달러화 강세가 각 업종마다 상이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각 업종은 위안화 약세 수혜주와 피해주로 구분이 가능하다.

위안화 약세의 수혜 업종은 자동차, 의류OEM이다. 위안화 약세로 원/달러 환율이 동반 상승할 경우, 해당 업종은 원화 약세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 업종은 엔화의 추가 약세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상황에서 대표적 수혜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다.

위안화 약세의 피해 업종은 세 가지로 분류 가능하다. 1)중국향 매출/로열티 비중이 높은 의류, 음식료, 게임, 2)중국 인바운드 소비와 관련된 화장품, 면세점, 여행, 3)중국과 경쟁 관계에 놓인 제조업, 서비스업이다.

이 중에서도 화장품, 면세점, 여행 등 중국 인바운드 소비주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본다. 향후 위안화의 추가 약세가 진행될 경우,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중국인의 해외 소비가 국내 소비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 미래 수요를 성장 동력으로 삼았던 중국 인바운드 소비주에 부정적이다. 화장품의 경우,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도 겪고 있어 조정 압력에 가장 빨리 노출될 수 있다.

Q7) 국내 주식시장의 수급 환경 변화는?

– 당분간 외국인 매도세는 지속되겠지만, 강도는 점차 약화될 것으로 판단한다. 주지 하다시피 외국인은 주가 변화에 따른 시세차익 뿐만 아니라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익에도 민감하다. 그런데 위안화의 갑작스런 평가 절하는 원화 약세를 더욱 촉진시키는 변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환차손 우려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현재 원/달러, 원/유로 캐리수익지수의 하락으로 외국인 매도압력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다만, 원/달러 환율이 최근 1년간 170원 가량 급등해 올해 고점으로 예상되는 1,200원에 근접한 상황이므로 외국인의 순매도 물량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판단한다. 한국 주식 투자자의 경우, 원/달러 환율 1,200원선은 환차익을 다시 기대할 수 있는 레벨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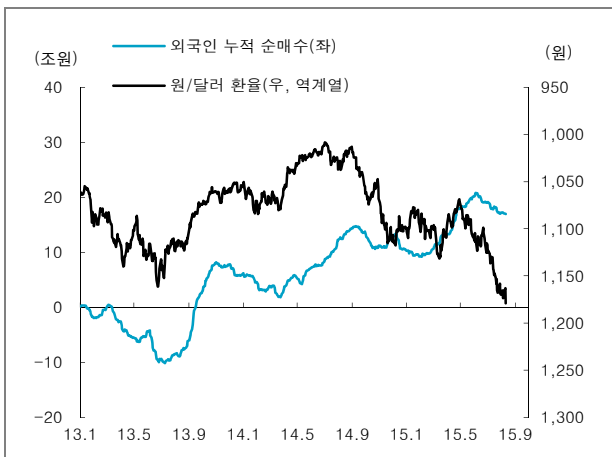
Q8) 하반기 주식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은?

– 하반기 주식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금리와 환율이 될 것이다. 시장 전반적으로 금리와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질 것이다. 이로 인해 그 동안 강세를 지속하던 고밸류 성장주와 중소형주는 조정 압력에 노출될 공산이 크다.

반면, 대형주의 상대강도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대형주에 대한 매수전략을 고민해 볼 시점이다. 향후 유망 업종은 1) 원화 약세 수혜주인 자동차, 의류OEM, 2) 환율 변동에 민감하지 않은 은행, 보험, 통신 등의 방어주가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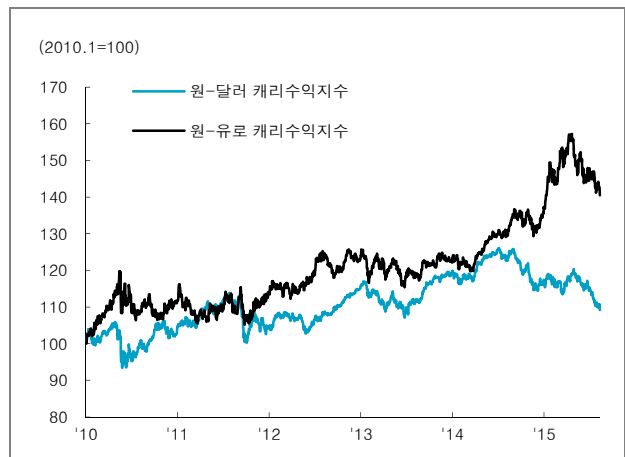
KOSPI는 하반기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위안/달러 환율의 갑작스런 변화로 지수는 2,000p를 하회했지만, 해당 지수에서는 추가 하락보다 반등에 대한 베팅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시총비중이 높은 대형 수출기업의 실적 부담은 원화 약세가 상쇄시켜줄 수 있다. 또한 VKOSPI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대형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해소되고 있는 점도 투자심리에 긍정적이다.

[그림 6]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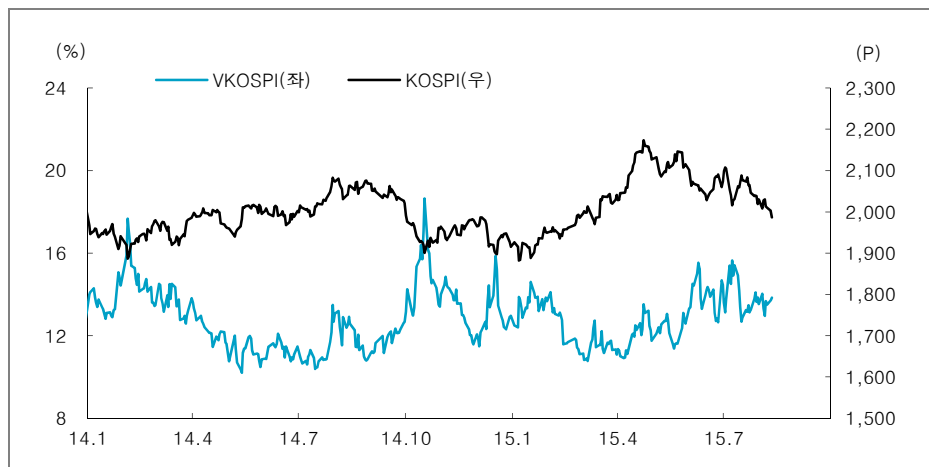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7] 원/달러 및 원/유로 캐리수익지수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8] KOSPI와 VKOSPI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중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중화권 증시 약보합, 여타 이머징 약세

- ▶ 상해종합지수는 약보합 마감, 인민은행 위안화 환율 상향 조정에 위안화 약세 우려로 하락
- ▶ 홍콩H지수는 0.2% 하락, 위안화 환율 급등 여파로 본토와 동조하며 약세
- ▶ 자카르타종합지수 2.5% 하락, 대중수출부진 우려 및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되며 약세
- ▶ VN지수는 0.2% 반락, 일부 대형주 차익실현 매물 출회로 하락세 전환

상해종합 약보합 마감,
운송, 은행, 증권, 보험 등
업종 하락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가 전일 5%가까이 급등한 뒤 약보합세를 보이며 3,927p로 마감했다. 소폭의 하락세로 출발후 장중 등락흐름을 반복하다 결국 보합세로 마감했다. 거래 대금은 7,123억위안으로 전일보다 소폭 확대됐다. 인민은행이 금일 위안화 기준고시 환율을 사상 최대수준의 폭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위안화 약세 우려가 돌발사태로 부각됐다. 다만 인민은행이 500억위안의 유동성을 역RP를 통해 시중에 공급해줬고 7월 통화지표들도 예상수준을 크게 상회했던 호재도 있었던 가운데 지준을 인하 기대감도 부각되면서 증시는 결국 보합흐름을 지켜냈다. 업종별로는 운송(-1.6%), 은행(-1.6%), 증권(-1.2%), 보험(-0.9%) 등의 시가총액 비중이 큰 금융주들이 하락하며 지수약세를 주도했다. 반면 유통업종은 위안화 약세와 온오프라인 기업통합 등의 호재에 힘입어 6.2% 급등했고 여가소비 확대조치 호재까지 동반된 컨슈머서비스업종은 4.1% 상승했으며 중형여는 상한가로 마감했다. 식품, 내구소비재, 에너지, 소재, 반도체, 부동산, 미디어, 환경보호 등의 업종들도 대부분 상승 마감했다.

홍콩H지수 0.2% 하락,
항공주, 금융주 등 환율
민감업종 약세

■ 홍콩 시장

홍콩H지수가 0.2% 하락한 11,265p로 마감했다. 전일 발표된 7월 중국 통화지표 호조와 미국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 완화 등 호재로 장 초반 급등 출발했으나 장중 위안화 환율급등 여파로 다시 급락세를 보였다. 환율에 민감한 항공주가 급락세를 보이며 하락폭이 가장 컸는데 에어차이나 주가는 12.8% 급락했다. 대부분 금융주들도 하락흐름을 보였고 7월 자동차 지표부진 악재로 동풍차, 비야디, 광주차 등 자동차관련주들이 모두 하락세를 기록했다. 반면 석유, 통신, 건설자재, 전력 등은 상승 마감했다.

자카르타종합지수 2.5%
하락,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대부분 업종 약세

■ 인도네시아 시장

자카르타종합지수는 하락 폭을 2.5%대로 확대했고 4거래일째 내림세를 유지했다. 기업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된 가운데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로 대중국 수출이 부진될 것이라는 우려도 고조됐다. 달러/루피아 환율도 연일 연중 최고치를 기록해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불확실성도 높아졌다. 최근 들어 외국인이 연속 대규모의 순매도세를 유지한 것도 악재로 작용했다. 대다수 업종이 동반 하락했다.

■ 베트남 시장

VN지수 0.2% 하락,
중소형주 강세, 대형주 약세

VN지수는 전강후약의 흐름을 보인 끝에 약보합세로 마감했다. 분기 실적 개선, 금리 하락, 은행권 건전성 개선에 대한 기대, 은행 부실자산 처리 가속화 등으로 오전에 강세가 우세했다. 그러나 오후 들어 일부 대형주에 대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지수에 부담을 안겨줬고 소폭의 하락세로 전환했다. 밸류 부담에 대형주가 하락한 반면 중소형주가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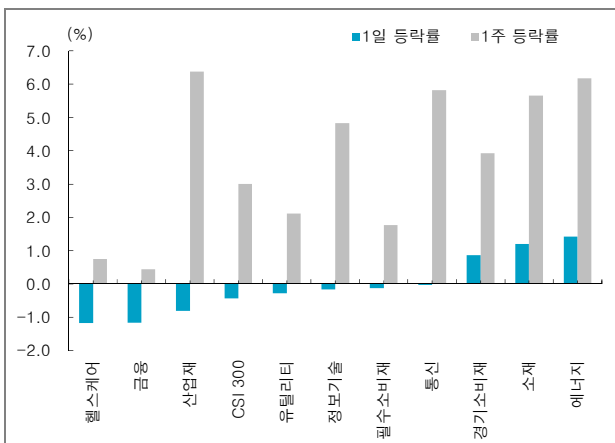
주요 이머징마켓 뉴스

시장 구분 주요 내용

중국	인민은행, 달러대비 위안화 기준고시환율을 기존대비 1.9% 상향, 역대 최대 조정폭 기록 인민은행, 7월 M2 통화공급 증가율 13.3%(예상치 11.7%, 전월치 11.8%) 인민은행, 7월 사회용자총액 7,188억위안(예상치 1.01조위안, 전월치 1.86조위안)
브라질	8월 9일, 무역수지 7.3억 달러 (전주치 2.0억 달러)
브라질	8월 7일, CPI 0.84%(예상치 0.86%, 전주치 0.72%)
러시아	2분기 GDP YoY -4.6% (예상치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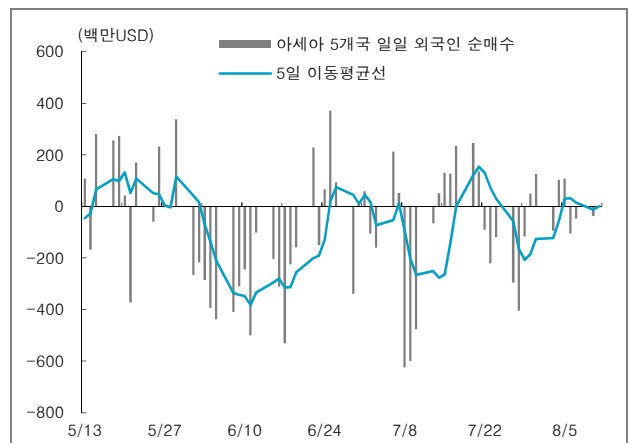
◆ 주요 이머징마켓 차트

[그림 1] 중국 CSI300 업종별 등락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 아세아 5개국* 외국인 순매수 규모 추이



주: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5개국의 달러자금 흐름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분	8/11(화)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중국 상해종합	3,927.91	-0.01	4.56	7.21	21.43
홍콩 H	11,264.64	-0.24	1.71	1.19	-6.01
중국 차스닥	2,698.91	-0.29	6.00	6.26	83.38
인도 SENSEX	27,904.52	-0.70	-0.60	-0.75	1.47
인도네시아 JCI	4,622.59	-2.66	-3.32	-3.75	-11.56
태국 SET	1,412.36	-0.55	-1.38	-1.93	-5.70
베트남 VN	613.05	-0.24	2.05	-1.29	12.36
MSCI 이머징마켓	887.70	0.30	-0.61	-1.55	-7.17

주: 11일 오후 6시 30분 기준

시장 동향과 특징주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 소식에 하락반전하며 코스피 5개월 만에 2,000P선 이탈

- 미국증시는 유가가 회복세를 보이며 에너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인것과 워런 버핏의 대규모 M&A 소식에 힘입어 다우지수는 8거래일 만에 반등 성공. 2,020P선을 회복하며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 매도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보였으나, 중국인민은행의 위안화 평가절하에 나섰다는 소식에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이내 하락반전, 1,990P선 마저 이탈하며 나흘 연속 하락 마감. 750P선을 회복하며 상승 출발한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차익실현 매물로 2%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며 732P로 마감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소속 가수들의 활발한 국내외 활동에 따른 2분기 실적 호조 및 하반기 실적 기대감에 에스엠이 11% 이상 강세를 보였으며, 관계사인 이노비오의 대규모 기술수출 계약 소식에 진원생명과학이 상한가를 기록. 제 4 이동통신 진출 타진 소식에 세종텔레콤이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대국민 사과와 함께 지배구조 개선 발표 소식에 롯데쇼핑을 비롯해 롯데그룹주가 강세를 보임. 또한 2분기 실적 호조를 기록한 하이룩코리아, 동국산업, 다이이씨, 로보스타 등의 강세가 두드러짐. 반면, 대출원리금 연체 발생 소식에 삼부토건이 이를 연속 급락했으며, 최근 강세를 보였던 음식료 관련 종목들이 차익실현 매물로 하락세를 보임

종목/이슈	내 용
에스엠(041510) ▶41,400(+11.14%)	2분기 실적 호조에 초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22.5%, 116.2% 증가하는 등 호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3분기에도 실적 호조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초강세 - 3분기에는 소속 가수들의 국내외 활발한 활동과 함께 일본 콘서트 매출이 인식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의 음악저작권 보호 강화 조치로 내년부터 중국 음원 시장 성장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
진원생명과학(011000) ▶13,900(상한가)	관계사인 이노비오의 다국적 제약사로의 기술수출 소식에 상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사인 이노비오가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자회사에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유발 암치료 DNA백신에 대한 기술을 약 7억3,000만달러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상한가 - 이노비오는 동사의 최대주주인 VGX파마슈티컬즈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회사인 VGXI를 통해 이노비오가 개발하는 DNA백신 전제품의 임상용 의약품을 독점 생산 중
롯데그룹주	대국민 사과 및 지배구조 개선 발언에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근 형제간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호텔롯데를 상장하고 순환출자를 연내에 80% 이상 해소하겠다고 발표 - 롯데쇼핑(023530, +9.29%), 롯데제과(004990, +9.27%), 롯데케미칼(011170, +3.11%), 롯데손해보험(000400, +2.39%), 롯데칠성(005300, +2.24%) 등 강세

52주 신고가

종목	내 용
조흥(002600) ▶276,000(+6.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회사 오뚜기가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너지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동사는 치즈·피자·이스트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제조업자개발생산(ODM) 업체임
세종텔레콤(036630) ▶570(+21.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이동 TF(태스크포스)을 신설하고 사업계획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신고가 경신. 동사는 기업 전용선, 국제·시외전화, 알뜰폰 등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제공 중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주요 종목들로 추천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유망종목: 삼광글라스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삼광글라스 (005090)	115,500 (-0.4)	116,000 (8/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라스락을 중심으로 내수 매출이 꾸준한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중국, 북미 등 해외 매출도 금년 하반기부터 성장성을 회복할 전망 - 2014년 적자를 보였던 유리병 부문의 수익 개선과 군장에너지, 이테크건설 등 주요 자회사들의 실적 호조세 지속 예상
MDS테크 (086960)	27,150 (+4.0)	26,100 (7/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베디드 시스템의 전 분야를 아우르는 소프트 전문기업으로 Connected Car, infotainment Car 개발 경쟁 가속화에 따른 수혜 예상 - 다양한 산업들과 IT와의 융합화를 감안할 때 임베디스 소프트웨어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세에 따른 구조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가운데 외산 SW를 대체하는 국방사업 수주 확대와 고객사의 빅데이터 도입 확산에 따른 성장 모멘텀도 내재
삼천당제약 (000250)	10,000 (-19.4)	12,400 (7/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EU-GMP) 제품인 결막염치료제 '올로텐'의 유럽향 수출 본격화에 대한 기대 유효 - 디에이치피코리아 지분 인수를 통한 시너지 효과로 안과용제 사업부 성장세 지속 - 고수익성의 제품군 집중 판매와 지속적인 안과용제 사업부의 성장으로 안정적인 외형확대 및 영업이익률 개선 추세 지속 예상
대교 (019680)	9,750 (+28.8)	7,570 (7/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교육비 감소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러닝센터 확대 추세, 중국어 학습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외형 축소국면 탈피. 눈높이 사업부의 턴어라운드, 차이홍 중국어의 저변 확대, 소빅스 매출 회복 등에 힘입어 점진적인 실적 회복 예상 - 높은 자산가치와 배당성향, 우수한 현금흐름 및 재무 건전성 등을 감안할 때 밸류에이션 매력 재부각 가능성 상존
넥센타이어 (002350)	13,550 (+5.9)	12,800 (7/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Original Equipment) 타이어 비중 증가, 고수익 제품인 UHPT(Ultra-High Performance Tire) 비중 증가 등 제품믹스 개선과 원재료 투입단가 하락에 따른 수익성 개선 예상 - 미국의 중국산 타이어 관세 부과에 따른 수혜가 하반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저유가에 따른 주행거리 증가로 유발되는 타이어 교체수요는 글로벌 타이어 수요 둔화를 일정부분 보완할 전망
에스원 (012750)	88,500 (+12.7)	78,500 (7/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용 보안 수요 증가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2분기에 시스템보안 가입자 성장세 지속 - 하반기에 건물관리, 상품판매, 정보보안 등 매출이 집중되는 특성을 감안할 때 하반기 수익성 개선 예상 - 통합 보안업체로 도약, 시장 지배력 확대, 정책적 지원, 주택임대관리 사업 진출 등으로 장기 성장성과 수익성 강화 예상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AJ렌터카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5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AJ렌터카 (068400)	14,900 (-1.0)	15,050 (8/11)	648	50	22	971	1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르스와 관련된 렌탈 감소는 일시적. 장기렌터카 개인 고객의 성장세, 법인 고객 수요 증가, 리스차 수요 흡수 등 렌터카 시장의 성장세를 주목할 필요 - 보유 자동차의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된 상태로 렌터카 시장의 장기 성장성, 중고차 사업부문의 이익성장 및 해외진출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밸류에이션 매력 재부각 가능성 상존 				
강원랜드 (035250)	41,400 (+0.0)	41,400 (7/31)	1,649	591	461	2,274	1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르스 영향에 따른 일시적인 실적 둔화보다는 성수기 진입, 테이블 증설효과, 가동률 상승효과, 인력확충 효과 등을 주목할 필요. 안정적인 실적 모멘텀과 배당매력 재부각 가능성 상존 - 제2 영동고속도로 개통, 평창올림픽 개최, 워터월드 사업, 중국인 방문객 증가 등 장기 성장 잠재력 확보 				
코웨이 (021240)	87,700 (-10.1)	97,500 (7/20)	2,302	432	325	4,383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가전 렌탈 시장의 성장세에 힘입어 환경가전 렌탈 부문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렌탈 가입자 순증세와 ARPU(가입자당 평균 렌탈요금) 상승세 지속 예상 - 외부 변수에 강한 비즈니스 및 수익 구조, 안정적인 국내외 성장 모멘텀, 판매채널 다각화, 배당 매력도, 해외사업의 잠재력 등을 주목할 필요 				
엔씨소프트 (036570)	211,000 (+16.9)	180,500 (1/2)	861	266	220	11,035	1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나선 가운데 기존 게임의 ARPU 상승과 길드워2 확장팩 출시 등으로 영업이익 개선세 지속 예상 - 리니지1의 수익성 높은 신규 아이템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가운데 리니지, 아이온, 블레이드앤소울의 추가 구성상품 선택을 통한 ARPU 상승 예상. 2015년에는 블레이드앤소울 TCG, 패션스트리트, 팡야 등 모바일 게임 다수 출시 예정 				
LG하우시스 (108670)	158,000 (-0.9)	159,500 (1/2)	3,137	163	123	12,279	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방산업의 회복으로 PVC 창호, 바닥재 등 건자재 건자재 매출 성장이 예상되며, 자동차, 가전관련 소재도 거래처 확대 등으로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전망 - PVC, 가소제, MMA 등 화학제품 가격 하락으로 원재료 감소에 따른 수익성 개선 예상. 미국에 자동차 원단 공장 증설, B2C 건자재 확대(온라인 '지인몰' 오픈 등) 등 다각적 투자를 통한 장기 성장동력 강화 				
LG생활건강 (051900)	829,000 (+34.1)	618,000 (1/2)	5,083	600	427	25,640	3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에도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면세 매출호조와 방문판매 매출증가로 화장품 부문의 실적은 개선세 지속 예상 - 화장품 면세채널과 중국사업 정상화, 생활용품과 음료부문의 경쟁완화 등에 따른 수익성 개선을 주목할 필요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강원랜드, LG생활건강, 엔씨소프트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화장품: 글로벌 화장품 2분기 동향과 시사점

■ 글로벌 화장품 2분기 실적 Update: 일본 서프라이즈, 한국 호조. 미주와 유럽 정체

화장품 업체 2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 국면이다. 1분기 유럽·미주 정체, 일본 부진, 한국 독주에서 2분기 일본 약진이 주목할 만하다. 2분기는 일본 서프라이즈, 한국 호조 지속, 미주와 유럽 정체로 요약된다. 일본은 1분기에는 2014년 4월 소비세 인상 전 가수요로 인한 높은 베이스로 부진했으나 2분기 본격적으로 중국 인바운드 관광객으로 인한 내수 호조를 경험하고 있다. 2014년 한국과 유사하다. 2분기 로컬 환율 기준으로 일본 순수 화장품업체인 Shiseido와 Kose 매출 증가율은 20% 이상으로 한국 업체들보다 높은 성장을 시현했다. 한국은 MERS 영향으로 중국인 인바운드 시장이 둔화되었지만 해외 사업 호조 등으로 만회하고 있어 글로벌 화장품 내 실적 순위는 여전하다.

■ All about China, 중국인 관광객 시장이 한국과 일본 화장품업체 2, 3분기 실적 변수

글로벌 화장품 업체들의 실적은 중국을 변수로 양분되고 있다. 특히 2분기 한국과 일본 업체들의 실적 변수는 중국인 인바운드 관광객 동향이었다. 2분기 내한 중국인 관광객수는 143만으로 0.1% 증가에 그쳤고, 일본은 126만으로 137% 급증했다. 특히 MERS 발병 직후인 6월은 한국이 45% 감소한 반면 일본은 167% 증가했다. 엔/위안화 환율 약세도 가팔라 상기 요인은 3분기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방향성에 있어서 우려는 정점을 통과했다고 판단한다. MERS 실질 종식으로 중국인 입국자수는 6~7월을 바닥으로 회복이 예상된다. 최근 원화 약세는 일본 엔저만큼 강력한 유인책은 아니나 소폭 긍정적이다.

■ 중국 현지 시장: 수입 화장품 고성장. 아시아. 그 중에서도 한국 우위 지속

중국 현지에서는 수입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확연하게 높아지고 있다. 중국 화장품 소매판매 증가율이 10% 수준인 반면 수입 화장품 시장은 2014년 41% 성장에 이어 금년 1~5월에도 전년대비 26% 성장했다. 한국과 일본이 호조인데, 한국이 독보적이다. 1~5월 한국으로부터 화장품 수입은 전년대비 234% 증가했고 일본은 37% 증가, 한국의 중국 수입 시장 점유율은 15.8%로 2위다. 아모레퍼시픽(094030, 매수/TP 500,000원)의 2분기 중국 현지 매출 증가율은 65%로 추정되고 LG생활건강(051900, 매수/TP 1,100,000원)도 2분기 중국 화장품 매출이 98% 증가했다. 일본은 대표업체 Shiseido의 중국 사업이 정체했고 다른 화장품 업체들의 경우도 성과가 미미하다.

■ 아시아 프리미엄, 중국 현지 사업에서 우위 지속되는 아모레퍼시픽, LG생건 관심 지속

글로벌 화장품 업종에서 대중국 사업이 호조인 한국과 일본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뚜렷하다. 최근 일본 화장품 업체들의 주가 상승세가 더욱 가파르고 3분기에도 한국 인바운드 시장 위축과 일본 인바운드 시장 호조로 인해 일본 화장품의 상대적 메리트가 지속될 수 있다. 단 최근의 주가 상승과 밸류에이션에 상기 요인은 상당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 화장품 업체들의 2015, 2016년 평균 PER(Shiseido 제외)은 39배, 33배에 달한다. 한국 업체 평균은 37배, 30배이다. 우리는 국내 인바운드 시장 회복 전망과 중국 현지 사업 경쟁 우위를 감안 시 현 조정 국면에서 점진적인 매수 관점을 제시한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

*상기 보고서는 2015년 8월 1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실리콘웍스(108320)

매수(유지)

목표가: 50,000원(유지)

종가(8/10): 33,750원

사업인수 효과는 하반기에 본격화

■ What's new: 루셈사업 인수효과는 2분기부터 발생

2분기 매출액은 1,245억원, 영업이익은 125억원(OPM 10.1%)으로 우리 추정치와 컨센서스를 충족했다. 지난 2월 루셈으로부터 COF(Chip on Film) D-IC(Driver IC) 패키징사업을 인수한 효과로 제품단가가 상승해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43.4%, 전년동기 대비 50.9% 증가했다. 아이패드용 부품의 매출액 비중이 높아 2분기에 매출액 감소가 나타났던 2013~2014년과는 다른 모습이다. 매출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업인수에 따른 비용증가와 단가인하폭 확대로 영업이익률은 전분기 대비 1.3%p 낮아졌지만 하반기에는 매출액 증가에 따른 수익성 개선효과가 기대된다.

■ Positives: 하반기에는 모바일 D-IC 제품 매출액 증가

2분기에는 COF D-IC의 매출액 증가만 포함됐지만 하반기에는 LG전자로부터 인수한 모바일용 D-IC매출액 증가도 예상된다. 하반기 애플워치용을 포함한 모바일용 D-IC매출액은 25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지난 1분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T-Con점유율 상승으로 인한 매출액 증가도 지속되고 있어 하반기 회사 전체의 매출액 증가폭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아이패드 수요부진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회사전체 매출액은 3,08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9.8% 증가할 전망이다.

■ Negatives: 계속되는 iPad용 부품 출하

상반기 애플 iPad수요부진이 지속되면서 실리콘웍스의 관련부품 매출액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 2분기 동사의 COG D-IC 매출액은 391억원으로 전년동기와 거의 유사했지만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1.7% 감소했다. 하반기에도 신모델 출시로 인한 효과는 있겠지만 전년동기대비 매출액 감소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2015년 동사의 COG D-IC 매출액은 1,737억원으로 전년대비 19.1% 감소해 2012년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일 전망이다.

■ 결론: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50,000원 유지

사업인수를 통한 매출액 및 이익증가가 나타나고 있는 동사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50,000원을 유지한다. 목표주가는 12개월 추정EPS에 목표PER 14배를 적용했다. 하반기에는 매출액 증가에 따른 수익성 개선과 이에 따른 주가상승이 예상된다. 현재 주가는 2015년 추정이익 기준 PER 10.1배로 48%의 상승여력이 있다. 최근 3년 평균 28.1% 이상의 배당성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동사의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또 다른 근거이다.

	2Q15				증감률		2015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120.4	124.5	3.4	121.4	43.4	50.9	519.8	526.9
영업이익	13.4	12.5	(6.7)	11.8	27.6	204.9	61.4	55.0
영업이익률	11.1	10.1	(1.1)	9.7	(1.3)	5.1	11.8	10.4
세전이익	14.5	13.7	(5.5)	12.4	18.1	136.2	68.0	61.2
순이익	9.6	11.2	16.7	9.9	23.1	154.5	54.4	49.7

*상기 보고서는 2015년 8월 1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GKL(114090)

매수(유지)

목표가: 47,000원(유지)

종가(8/10): 30,250원

외형 확대 지속

■ What's new : 영업이익 전년동기 대비 5% 증가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와 우리 추정치를 하회했다. 매출액은 1,224억원, 영업이익은 21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4.9%, 5.0% 늘었다. 중국인 방문객수는 메르스 영향으로 부진했음에도 전년동기 대비 21.2% 늘어 전체 방문객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3.9%(+3.3%p YoY)로 상승했다. 홀드올은 11.3%로 전년과 동일했다. 순이익이 99.2% 증가해 높은 성장률을 달성한 이유는 전년동기 109억원의 기부금 납부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 Positives : 드롭액 5분기 연속 증가세 지속

드롭액은 전년동기 대비 5.6% 증가해 5분기 연속 성장세를 지속했다. 중국인(+21.2% YoY), 교포(+11.7% YoY) 등 방문객수가 12.2% 늘었고, 그 중 VIP 고객이 7% 증가했다. 드롭액 성장률이 한자리수로 낮아진 점은 아쉽지만 비우호적이었던 영업 환경을 감안하면 견조했다. 업장별로는 강남코엑스점, 강북힐튼점, 부산롯데점이 각각 4.8%, 6.3%, 7.3% 늘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과 교포 등 기타는 4%, 26% 증가했으나 일본인은 5% 줄었다.

■ Negatives : 방한 외국인 감소로 6월 실적 부진

6월 메르스 여파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입국자수가 전년동월 대비 39.7% 감소한 영향으로 외국인전용 카지노인 GKL의 6월 실적도 부진했다. 드롭액과 순매출액은 각각 28.2%, 26.8% 감소했다. 6월 전체 방문객수는 전년동월 대비 13% 줄었다.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체 중국인 방문객수는 3.7% 감소에 그쳤으나 4월~5월 39% 증가해 외형 성장을 견인했던 중국인 VIP 방문객수가 6월에는 전년동월 대비 40% 줄었다. 다만 강북힐튼점 드롭액은 다른 영업장과 달리 0.1% 증가했는데 입지적 조건 등이 좋아 VIP 등 방문객 감소폭이 적었고 기존에도 가동률이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 결론 : 카지노 복합리조트 선정 모멘텀 보유, 매수 의견 유지

GKL에 대해 매수 의견과 목표주가 47,000원을 유지한다. 목표주가는 실적이 정상궤도로 복귀하는 2016년 EPS에 목표PER 22배를 적용해 산출했다. 메르스 종식으로 7월 말부터 영업 상황이 정상화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여 월별 실적은 점진적으로 개선세를 보일 전망이다. 강남코엑스점은 5월 소규모 확장을 진행했고, 연내 추가 확장이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내로 사업자 후보 지역과 후보자 수를 발표할 계획이다. 최종 사업자 선정은 연내 확정할 예정으로 기존 사업자로서의 노하우와 시장 내 입지 등을 감안했을 때 GKL이 경쟁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단위: 십억원, %, %p)

	2Q15P				증감률		2015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125	122	(2.1)	122	(17.7)	4.9	543	564
영업이익	29	22	(24.5)	26	(55.4)	5.0	133	152
영업이익률	22.9	17.7	(5.2)	21.0	(14.9)	0.0	24.6	27.0
세전이익	30	24	(18.5)	27	(42.4)	92.2	133	152
순이익	23	19	(18.0)	21	(42.4)	99.2	100	115

*상기 보고서는 2015년 8월 1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송승연(seungyeon.song@truefriend.com) ☎ 02-3276-6273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8/4(화)	8/5(수)	8/6(목)	8/7(금)	8/10(월)	8/11(화)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027.99	2,029.76	2,013.29	2,010.23	2,003.17	1,986.65
	등락폭		19.50	1.77	-16.47	-3.06	-7.06	-16.52
	등락종목	상승(상한)	557(0)	565(1)	407(3)	380(4)	273(3)	204(3)
		하락(하한)	238(0)	235(0)	404(0)	424(0)	551(1)	598(0)
	ADR		88.91	95.29	97.23	94.73	85.68	79.05
	이격도	10 일	99.52	99.78	99.22	99.25	99.07	98.51
		20 일	99.01	99.06	98.29	98.19	97.99	97.35
	투자심리		40	50	40	40	40	30
	거래량	(백만 주)	389	319	341	335	308	363
	거래대금	(십억 원)	5,020	5,065	5,884	4,745	4,492	5,029
코스닥	코스닥지수		730.03	741.26	747.74	751.49	746.34	732.26
	등락폭		15.69	11.23	6.48	3.75	-5.15	-14.08
	등락종목	상승(상한)	557(4)	565(2)	407(5)	380(4)	273(1)	284(2)
		하락(하한)	238(0)	235(0)	404(0)	424(0)	551(0)	744(0)
	ADR		93.95	97.99	101.50	100.16	90.36	83.68
	이격도	10 일	98.14	100.12	101.40	102.25	101.61	99.87
		20 일	97.32	98.72	99.44	99.80	99.14	97.43
	투자심리		40	50	40	40	40	30
	거래량	(백만 주)	423	418	449	444	432	615
	거래대금	(십억 원)	2,707	3,266	3,360	3,250	3,086	3,836

◆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 자 권	매수	2,860.5	1,300.7	834.2	223.2	87.1	224.3	60.0	16.4	223.171	64.8
	매도	2,785.2	1,385.7	851.8	233.2	126.2	175.7	66.7	23.2	226.7	37.5
	순매수	75.3	-85.0	-17.6	-10.0	-39.2	48.6	-6.7	-6.8	-3.5	27.3
	8월 누계	287.4	-252.3	-349.6	96.3	-43.5	115.6	-34.4	-7.3	-476.2	314.5
	15년 누계	3,446.7	6,244.7	-10,104.6	-5,391.5	-1,407.0	-5,617.3	-808.8	-810.0	3,930.0	413.2
코 스 닥	매수	3,409.7	216.2	215.9	57.5	28.0	73.1	10.8	6.4	40.1	29.3
	매도	3,453.6	198.4	193.9	53.9	25.3	48.5	16.0	7.5	42.7	25.1
	순매수	-43.9	17.8	22.0	3.6	2.7	24.6	-5.2	-1.1	-2.6	4.1
	8월 누계	51.8	-158.3	150.8	-23.1	47.3	109.8	17.6	1.5	-2.3	-44.3
	15년 누계	1,042.7	-601.6	1,101.8	-261.5	401.8	787.3	-0.6	-217.6	392.3	-1,543.0

주: 외국인인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금융업	12,761	전기,전자	-6,786
통신업	12,624	제조업	-6,086
음식료품	11,171	화학	-5,794
SK텔레콤	7,538	KODEX 200	-32,041
KB금융	6,953	삼성전자	-9,629
현대그린푸드	5,407	농심홀딩스	-6,853
신한지주	5,314	SK이노베이션	-5,014
코웨이	5,164	롯데케미칼	-3,882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8,454	전기,전자	-7,586
통신업	4,579	보험	-4,792
음식료품	3,766	증권	-4,562
LG생활건강	13,976	NAVER	-6,734
신세계	5,660	삼성물산	-5,786
삼양홀딩스	5,652	삼성생명	-4,844
SK텔레콤	5,436	GS	-4,165
코웨이	3,498	LG전자	-3,882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1,404	전기,전자	-1,514
통신업	1,150	운수창고	-1,463
철강및금속	509	유통업	-1,174
TIGER 200	19,956	현대글로벌비스	-1,210
KStar 200	9,967	롯데쇼핑	-1,186
KT	1,547	삼성SDI	-1,108
TIGER 경기방어	872	한미약품	-834
LG화학	854	에스원	-794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통신업	7,198	화학	-12,242
철강및금속	3,666	전기,전자	-8,472
비금속광물	49	증권	-6,139
SK텔레콤	6,765	삼성전자	-6,854
롯데쇼핑	4,925	KCC	-5,867
고려아연	4,114	KINDEX200	-5,493
농심홀딩스	3,459	삼성물산	-5,158
쿠쿠전자	1,741	대우증권	-4,560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통신업	28,799	전기,전자	-43,724
금융업	18,348	증권	-18,089
철강및금속	15,724	제조업	-16,214
SK텔레콤	26,747	삼성전자	-37,635
LG생활건강	16,826	KODEX 레버리지	-27,072
고려아연	12,629	삼성물산	-14,260
롯데쇼핑	9,223	KCC	-12,782
코웨이	8,642	SK하이닉스	-11,675
현대차	8,547	오리온	-11,256
삼성전자우	8,393	대우증권	-10,023
아모레G	7,709	삼성에스디에스	-7,799
현대그린푸드	7,175	NAVER	-6,418
신세계	6,671	삼성생명	-6,180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49,494	유통업	-39,828
금융업	8,909	음식료품	-28,965
건설업	6,620	화학	-22,629
삼성전자	70,251	LG생활건강	-29,296
NAVER	18,106	코웨이	-20,760
신한지주	14,177	아모레퍼시픽	-18,342
현대위아	6,543	호텔신라	-14,654
SK C&C	5,875	SK텔레콤	-12,183
엔씨소프트	5,801	SK하이닉스	-11,720
대림산업	5,799	고려아연	-8,678
한미사이언스	4,361	롯데쇼핑	-8,295
락앤락	4,208	삼성전자우	-8,071
하나투어	3,976	현대차	-8,013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출판,매체복제	8,783	제약	-7,461
전문기술	5,692	화학	-838
종이,목재	2,355	농업	-539
에스엠	7,618	셀트리온	-5,557
CJ E&M	3,788	휴온스	-1,457
삼성엘엔에스	2,344	인바디	-1,403
토텍	1,783	위메이드	-1,169
인터파크홀딩스	1,383	바이넥스	-797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소프트웨어	2,344	반도체	-3,139
출판,매체복제	2,342	전문기술	-1,581
제약	1,093	사업지원	-1,329
에스엠	2,342	씨젠	-2,127
KG이니시스	1,832	CJ E&M	-1,315
코오롱생명과학	1,406	모두투어	-1,290
오스템임플란트	988	다음카카오	-958
메디투스	861	테스	-883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출판,매체복제	1,345	디지털컨텐츠	-796
인터넷	388	기타제조	-668
도매	115	IT부품	-508
에스엠	1,345	손오공	-668
다음카카오	388	웹젠	-481
에스텍파마	342	서부T&D	-428
제이콘텐트리	182	컴투스	-382
녹십자셀	179	OCI머티리얼즈	-350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의료,정밀기기	2,469	반도체	-1,056
인터넷	1,333	화학	-831
출판,매체복제	1,154	IT부품	-829
바텍	2,671	OCI머티리얼즈	-1,030
코오롱생명과학	1,294	메디투스	-890
에스엠	1,167	바이넥스	-796
디오	832	유진기업	-775
휴온스	832	CJ프레시웨이	-699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출판,매체복제	16,810	제약	-7,854
인터넷	11,254	반도체	-5,339
전문기술	7,719	화학	-4,983
에스엠	15,846	셀트리온	-5,273
다음카카오	10,907	휴온스	-3,695
CJ E&M	5,818	위메이드	-3,366
코오롱생명과학	3,650	OCI머티리얼즈	-2,832
푸드웰	2,228	씨젠	-2,649
바텍	2,085	유진기업	-2,405
KG이니시스	2,008	제이콘텐트리	-2,307
토텍	1,816	한글과컴퓨터	-2,204
인터파크홀딩스	1,570	파라다이스	-2,181
코나아이	1,188	에이블씨엔씨	-1,979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출판,매체복제	11,207	제약	-11,665
반도체	8,848	디지털컨텐츠	-4,019
오락,문화	7,255	연구,개발	-2,767
에스엠	11,337	삼성엘엔에스	-2,580
제이콘텐트리	6,793	컴투스	-2,474
다음카카오	6,415	메디투스	-2,320
OCI머티리얼즈	5,727	대화제약	-2,252
바텍	3,022	지스마트글로벌	-2,060
코스온	2,516	휴비츠	-2,029
한글과컴퓨터	1,960	웹젠	-1,850
위메이드	1,593	메디포스트	-1,481
인바디	1,375	바이로메드	-1,459
쇼박스	1,325	코리아나	-1,454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 O S P I			
기	관	외	국 인
일성신약	17 일	대림산업	12 일
LF	15 일	한국가스공사	12 일
KODEX 200	15 일	국도화학	11 일
LG생활건강	14 일	한국철강	9 일
대덕전자	11 일	빙그레	7 일
신세계	9 일	모토닉	7 일
현대엘리베이	9 일	NAVER	7 일
KODEX 은행	9 일	S&T모티브	7 일

K O S D A Q			
기	관	외	국 인
인터파크홀딩스	10 일	동진세미켄	9 일
에스엠	7 일	OCI머티리얼즈	6 일
모두투어	7 일	SBS콘텐츠허브	6 일
톱텍	7 일	에스엔유	5 일
다음카카오	6 일	태광	4 일
오스템임플란트	5 일	KH바텍	4 일
에스에프에이	4 일	포스코 ICT	3 일
CJ E&M	4 일	솔브레인	3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 O S P I			
기	관	외	국 인
LG생활건강	62,301	삼성전자	108,595
KODEX 200	37,774	NAVER	62,091
현대엘리베이	30,209	SK이노베이션	23,902
CJ제일제당	28,218	롯데케미칼	23,049
KODEX 인버스	27,005	삼성에스디에스	22,907
KB금융	25,846	현대위아	19,398
SK텔레콤	24,964	한국전력	17,043
신세계	24,778	하나금융지주	13,979

K O S D A Q			
기	관	외	국 인
다음카카오	51,086	에스엠	13,741
셀트리온	38,297	셀트리온	13,091
에스엠	37,047	제이콘텐츠리	11,546
CJ E&M	15,915	OCI머티리얼즈	11,377
코오롱생명과학	13,057	바텍	8,263
KG이니시스	12,989	레드로버	4,063
인트론바이오	7,564	원익IPS	1,851
에이치엘비	7,357	나이스정보통신	1,813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 O S P 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금융업	18,348	8,909	27,257
서비스업	8,226	2,371	10,597
종이, 목재	37	1,694	1,731
신한지주	4,399	14,177	18,576
KB금융	6,477	788	7,265
대우인터내셔널	5,414	1,023	6,437
락앤락	1,744	4,208	5,952
삼양홀딩스	4,912	802	5,714
한화케미칼	2,106	2,224	4,329
롯데케미칼	3,761	492	4,253
SKC	3,523	152	3,675
효성	1,774	1,079	2,853
일동제약	90	2,315	2,406

K O S D A 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출판,매체복제	16,810	11,207	28,017
인터넷	11,254	6,294	17,548
소프트웨어	1,031	4,245	5,275
에스엠	15,846	11,337	27,183
다음카카오	10,907	6,415	17,322
CJ E&M	5,818	176	5,994
바텍	2,085	3,022	5,107
에이치엘비	983	1,114	2,097
KG이니시스	2,008	62	2,070
코나아이	1,188	339	1,527
에스텍파마	471	908	1,379
실리콘웍스	1,041	99	1,140
오스템임플란트	658	378	1,036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조선내화	24 일	LF	18 일
신도리코	20 일	KODEX 200	15 일
TIGER 원유선물(H)	19 일	휴켄스	11 일
한일시멘트	17 일	아이에스동서	10 일
삼성증권	17 일	TIGER 200	9 일
SK이노베이션	17 일	TREX 200	9 일
대림산업	14 일	파워 K100	9 일
마이더스 커버드콜	14 일	신세계	8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평화정공	12 일	매일유업	11 일
위메이드	12 일	KTH	10 일
젠탭스	10 일	성광벤드	5 일
AP시스템	9 일	DMS	5 일
동국산업	7 일	파라다이스	4 일
KCC건설	7 일	오성엘에스티	4 일
덕산하이메탈	7 일	다날	4 일
서부T&D	6 일	크레듀	4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KODEX 레버리지	-178,798	LG생활건강	-67,784
삼성전자	-138,838	KODEX 200	-61,363
삼성물산	-71,314	SK하이닉스	-60,168
NAVER	-69,282	신세계	-51,004
제일모직	-67,099	삼성물산	-46,070
SK하이닉스	-50,516	코웨이	-44,815
한국전력	-37,796	SK텔레콤	-41,744
KCC	-37,319	TIGER 200	-39,483

KOSDAQ			
기	관	외	국 인
위메이드	-9,824	삼성엘엔에스	-16,420
OCI머티리얼즈	-7,249	CJ오쇼핑	-10,121
로만손	-5,917	NICE평가정보	-9,660
심텍홀딩스	-5,611	파라다이스	-8,347
엑토스소프트	-5,213	토비스	-6,887
서부T&D	-4,884	휴비츠	-6,830
인터플렉스	-4,185	에이치엘비	-5,219
파라다이스	-4,123	마크로젠	-4,152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제조업		-16,214	-1,090 -17,304
전기가공업		-4,659	-6,595 -11,254
은행		-846	-1,386 -2,232
SK하이닉스		-11,675	-11,720 -23,395
호텔신라		-4,009	-14,654 -18,663
삼성물산		-14,260	-4,168 -18,428
오리온		-11,256	-1,270 -12,526
제일모직		-2,202	-6,885 -9,087
한국전력		-1,910	-6,941 -8,850
오뚜기		-3,004	-3,415 -6,419
대상		-1,037	-4,527 -5,563
SK네트웍스		-3,504	-1,003 -4,507
농심홀딩스		-2,053	-583 -2,636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제약		-7,854	-11,665 -19,520
디지털컨텐츠		-3,956	-4,019 -7,976
화학		-4,983	-553 -5,537
셀트리온		-5,273	-1,278 -6,551
파라다이스		-2,181	-1,363 -3,544
웹젠		-1,647	-1,850 -3,498
씨젠		-2,649	-771 -3,420
메디톡스		-718	-2,320 -3,037
휴비츠		-500	-2,029 -2,529
이엔에프테크놀로지		-1,460	-935 -2,395
바이넥스		-1,596	-518 -2,114
엘오티베콤		-1,340	-299 -1,639
메디포스트		-84	-1,481 -1,565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 O S P I			
종 목	주 수	금 액	
SK하이닉스	286	10,343	
제일모직	65	9,869	
삼성전자	8	8,643	
KCC	20	8,375	
현대차	60	8,336	
S-Oil	130	7,567	
롯데쇼핑	35	7,314	
삼성에스디에스	26	6,792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 O S D A Q			
종 목	주 수	금 액	
파라다이스	278	6,314	
바이로메드	24	4,353	
다음카카오	19	2,510	
웹젠	69	2,279	
셀트리온	23	1,889	
한국사이버결제	32	1,367	
에이치엘비	40	1,253	
OCI머티리얼즈	11	1,211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 O S P 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3,176	3,623,323	
현대차	8,921	1,248,904	
현대중공업	11,776	1,101,021	
아모레퍼시픽	2,038	846,629	
제일모직	5,557	836,260	
호텔신라	6,131	824,580	
삼성중공업	58,950	713,298	
SK하이닉스	18,300	664,307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 O S D A 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17,393	1,460,994	
다음카카오	7,214	979,682	
CJ E&M	477	551,342	
파라다이스	11,301	256,535	
위메이드	1,429	246,144	
바이로메드	1,009	184,589	
컴투스	1,146	141,141	
이오테크닉스	996	119,985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 O S P I			
순 증		순 감	
운수창고	5,485	유통업	-2,868
서비스업	3,762	통신업	-1,864
증권	3,331	보험	-1,703
현대상선	4,057	삼성물산	-3,105
SK네트웍스	1,854	KODEX 200	-2,484
두산인프라코어	1,521	대우건설	-2,242
메리츠증권	1,363	삼성생명	-2,056
팬오션	1,319	LG유플러스	-1,615
대신증권	1,002	호텔신라	-1,167
한화케미칼	991	SK하이닉스	-979
기업은행	947	신일산업	-766
LG전자	817	한국전력	-562
LG디스플레이	733	GKL	-526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 O S D A Q			
순 증		순 감	
IT부품	1,397	반도체	-1,075
도매	860	섬유,의류	-307
오락,문화	776	전문기술	-262
파트론	980	심택홀딩스	-1,005
파라다이스	864	셀트리온	-426
티케이케미칼	416	지엔코	-254
동서	414	네오이노스엔모크스	-244
솔고바이오	413	씨젠	-210
주성엔지니어링	315	CJ E&M	-204
고영	299	에스엠	-188
유비쿼스	264	바른전자	-186
JW중외신약	251	넥슨지티	-155
한양이엔지	251	대성창투	-152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8/5(수)	8/6(목)	8/7(금)	8/10(월)	8/11(화)
외국인	6,244.7	-252.3	-300.7	-26.1	-100.4	-30.7	-58.4	-85.0
기관계	-10,104.6	-349.6	-319.2	17.8	-143.8	-173.1	-2.6	-17.6
(투신)	-5,617.3	115.6	97.5	61.8	8.2	-51.8	30.7	48.6
(연기금)	4,515.3	-449.5	-316.5	-59.1	-149.6	-99.3	-1.9	-6.6
(은행)	-810.0	-7.3	-1.6	8.5	3.2	-3.9	-2.6	-6.8
(보험)	-1,407.0	-43.5	-58.6	23.4	-16.4	-1.7	-24.7	-39.2
개인	3,446.7	287.4	405.9	-64.2	175.9	151.7	67.2	75.3
기타	413.2	314.5	214.1	72.4	68.3	52.2	-6.2	27.3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12	2013	2014	8/4(화)	8/5(수)	8/6(목)	8/7(금)	8/10(월)
KOSPI	1,997.1	2,011.3	1,915.6	2,028.0	2,029.8	2,013.3	2,010.2	2,003.2
고객예탁금	18,014.3	14,211.8	15,842.5	20,991.8	20,214.2	20,494.8	20,463.1	20,691.3
(증감액)	334.1	-3,802.5	1,630.7	-589.9	-777.6	280.6	-31.7	228.2
(회전율)	26.7	29.9	34.0	36.8	41.2	45.1	39.1	36.6
실질예탁금증감	-13,998.7	-10,125.7	-2,121.1	-698.8	-604.1	108.6	-137.3	329.6
신용잔고(KOSPI)	2,202.9	2,289.7	2,533.3	3,655.2	3,638.1	3,634.0	3,648.7	3,670.1
신용잔고(KOSDAQ)	1,709.5	1,893.1	2,537.4	3,895.3	3,883.2	3,875.9	3,909.9	3,935.4
미수금	1,241.0	929.0	1,176.0	160.3	173.6	130.7	116.3	135.2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8/3(월)	8/4(화)	8/5(수)	8/6(목)	8/7(금)
전체 주식형	77,858	-3,244	242	117	0	98	60	-33
(ex. ETF)		-1,675	194	48	57	27	96	-32
국내 주식형	60,343	-3,852	163	124	-6	97	17	-69
(ex. ETF)		-2,283	116	54	51	25	53	-69
해외 주식형	17,516	608	79	-7	6	1	42	36
(ex. ETF)		607	79	-7	6	1	42	36
주식 혼합형	9,483	-1,298	27	-16	0	20	14	8
채권 혼합형	30,373	2,686	422	62	201	32	68	58
채권형	83,995	9,532	-23	31	-87	13	-18	38
MMF	122,111	38,824	6,572	622	3,368	2,280	-24	326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 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8/5(수)	8/6(목)	8/7(금)	8/10(월)	8/11(화)
한 국	5,864	-213	-255	-22	-86	-26	-50	-69
대 만	3,400	-288	-240	14	-90	-28	-43	-93
인 도	7,364	297	177	114	45	-	-	-
인도네시아	250	-75	-60	-14	-19	-19	-8	-
태국	-1,436	-195	-125	-12	-40	-50	-23	-
남아공	3,383	4	-27	16	9	-	-	-
필리핀	193	-20	0	30	0	-18	-13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4년말	8/4(화)	8/5(수)	8/6(목)	8/7(금)	8/10(월)	8/11(화)
회사채 (AA-)	2.43	2.01	2.03	2.02	2.02	1.99	1.97
회사채 (BBB-)	8.26	7.94	7.95	7.95	7.95	7.92	7.90
국고채 (3년)	2.10	1.77	1.79	1.79	1.78	1.76	1.73
국고채 (5년)	2.28	2.04	2.05	2.04	2.04	1.98	1.96
국고채 (10년)	2.60	2.41	2.42	2.41	2.41	2.35	2.32
미 국채 (10년)	2.20	2.22	2.27	2.22	2.16	2.22	-
일 국채 (10년)	0.33	0.39	0.40	0.43	0.42	0.41	-
원/달러	1,099.30	1,165.50	1,173.60	1,166.20	1,167.40	1,163.20	1,179.00
원/100엔	920.30	939.54	939.41	934.46	939.86	933.70	944.33
엔/달러	119.45	124.05	124.93	124.80	124.21	124.58	124.85
달러/유로	1.22	1.10	1.09	1.09	1.09	1.09	1.10
DDR3 1Gb (1333MHz)	1.34	1.14	1.14	1.13	1.10	1.09	-
DDR3 2Gb (1333MHz)	2.21	1.34	1.33	1.32	1.30	1.30	-
NAND Flash 16Gb (MLC)	2.18	1.59	1.59	1.59	1.59	1.59	-
CRB 지수	233.24	201.39	200.30	199.06	198.32	202.45	-
LME 지수	2,907.6	2,434.9	2,408.1	2,404.3	2,398.8	2,454.0	-
BDI	782	1,200	1,222	1,201	1,200	1,197	-
유가 (WTI, 달러/배럴)	53.61	45.74	45.15	44.66	43.87	44.96	-
금 (달러/온스)	1,185.50	1,090.65	1,085.10	1,089.75	1,093.50	1,097.0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3	4	5	6	7
韓> 7월 수출 YoY(1일) (-3.3%, -6.8%, -1.8%) 中> 7월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1일) (50.0, 50.1, 50.2) 7월 차이신 제조업 PMI (47.8, 48.3, 48.2) 美> 7월 ISM 제조업지수 (52.7, 53.5, 53.5) 유럽> 7월 마킷 제조업 PMI (52.4, 52.2, 52.2)	韓> 7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0.7%, 0.7%, 0.7%) 日> 7월 본원통화 YoY (32.8%, n/a, 34.2%) 美> 6월 제조업수주 (1.8%, 1.7%, -1.0%)	유럽> ECB 정기회의 美> 7월 ADP취업자변동(천명) (185, 215, 229)	日> BOJ 통화정책회의 독일> 6월 공장수주 MoM (2.0%, 0.3%, -0.3%)	美> 7월 실업률 (n/a, 5.3%, 5.3%) 7월 비농업부분고용자수 변동(천명) (n/a, 225, 223) 독일> 6월 산업생산 MoM (-1.4%, 0.3%, 0.0%)
10	11	12	13	14
中> 7월 수출 YoY(8일) (-8.9%, -0.3%, 2.1%) 7월 수입 YoY(8일) (-8.6%, -6.6%, -6.7%) 7월 소비자물가지수 YoY(9일) (1.6%, 1.5%, 1.4%) 日> 6월 BOP 경상수지(십억엔) (558.6, 785.9, 1,880.9) 실적발표> 韓 GKL, 휴비츠, 원익IPS 에이블씨앤씨, 하림	中> 7월 M2 통화공급 YoY (~15일) (13.3%, 11.7%, 11.8%) 7월 신규대출 (십억위안, ~15일) (1,480.0, 750.0, 1,279.1) 독일> ZEW 서베이 예상 (n/a, 31.0, 29.7) 실적발표> 韓 아시아나항공 美 시만텍	韓> 7월 실업률 (n/a, 3.8%, 3.9%) 中> 7월 소매판매 YoY (n/a, 10.6%, 10.6%) 7월 광공업생산 YoY (n/a, 6.6%, 6.8%) 日> 6월 광공업생산 MoM (n/a, n/a, 0.8%) 유럽> 6월 산업생산 MoM (n/a, 0.2%, -0.4%) 실적발표> 韓 동양생명, 한화케미칼 베이직하우스, 게임빌 美 메이시즈, 시스코	韓> 금통위 금리 결정 日> 6월 기계수주 MoM (n/a, -5.1%, 0.6%) 美> 7월 소매판매 추정 MoM (n/a, 0.5%, -0.3%) 독일> 7월 최종 소비자물가지수 YoY (n/a, 0.2%, 0.2%) 실적발표> 韓 아모레퍼시픽, NH투자증권 다음카카오, 삼성생명, 한화생명, 대우증권, 삼성증권, 한화, 대상, 오투기, SBS, GS	유럽> 2분기 GDP QoQ (n/a, 0.4%, 0.4%) 7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n/a, 0.2%, 0.2%) 독일> 2분기 GDP QoQ 예비치 (n/a, 0.5%, 0.3%) 美> 7월 광공업생산 MoM (n/a, 0.3%, 0.3%) 실적발표> 韓 현대해상, 금호타이어 영원무역홀딩스, SKC
17	18	19	20	21
日> 2분기 GDP QoQ	美> 7월 주택착공건수	美> 7월 소비자물가지수 MoM 日> 7월 무역수지	美> 7월 FOMC 의사록 공개 7월 기준주택매매	

☞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

